

## 글로벌 인재 확보 위해 미국 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 “창사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추진 중”

LG화학 美 현지 채용행사 주관  
“도전·성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겠다”

LG화학이 세계 최대 종합 배터리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선다.

22일 LG화학에 따르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ESG 기반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육성해 나갈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미국 현지 채용 행사를 주관했다. 이와 관련 신 부회장은 지난 주말, CTO(최고기술책임자) 유지영 부사장, CHO(최고인사책임자) 김성민 부사장 등과 함께 미국 뉴저지주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채용행사인 'BC(Business & Campus)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조지아공과대, 코넬대 등 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인 BC투어를 개최하며 환영사를 하고 있다.

요 10여개 대학 및 연구소의 석·박사 및 학부생 40여명이 초청됐으며, 신 부회장은 경영진과 대화 시간을 갖고 직접 이들에게 회사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한 인재들은 친환경·바이오 소재, 배터리 소재, 신약 개발 등 LG화학의 신성장 동력 관련 분야의 전공

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세계 7대 화학기업으로 글로벌 톱 10 중 유일하게 2019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코로나 이후 기업 가치가 상승한 글로벌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며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변곡점 속에

서도 LG화학이 유례없는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같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창사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 중”이라며 “여러분과 같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취임 첫 해부터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왔다. 2019년에는 'BC(Business & Campus) 투어' 최초로 유럽 지역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채용 행사를 직접 주관했고, 올해는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이공계 석·박사 과정 R&D 인재를 초청하는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LG화학의 'BC(Business & Campus) 투어'는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지 우수 인재들과 소통하며 현장 인터뷰까지 실시하는 대표적 글로벌 인재 확보 활동으로 CEO의 해외 출장과 연계해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HMM, 세계최대 컨선 12척 누적 운송량 100만TEU 돌파

헤드홀 101만TEU 백홀 186만TEU  
초대형선 비율 50% 세계최고 수준

HMM은 세계 최대컨테이너선 2만 4000TEU급 선박 12척의 누적 운송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화물(헤드홀) 기준 총 100만TEU를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헤드홀은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수출화물을 뜻하며,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되돌아올 때 싣는 물량을 백홀(Back-haul)이라고 한다.

지난 3일 부산신항에서 국내 수출물량 등 화물 2803TEU를 싣고 떠난 2만 4000TEU급 컨테이너 5호선 'HMM 그단스크'호가 전날 중국 옌토히항에서 만선으로 출항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운송량은 총 101만5563TEU를 기록했다. '그단스크'호는 다음달 21일 스페인 알헤시라스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독일 함부르크항에서 하역 작업을 마치고 출항을 준비중인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그단스크(Gdansk)'호.

지난해 4월부터 유럽노선에 투입된 1호선 'HMM 알헤시라스'호부터 12호선까지 헤드홀 기준, 총 52항차 중 50항차를 만선으로 출항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나머지 2항차는 99%를 선적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아오는 백홀(수입

화물)을 포함하면 총 97항차를 운항했으며 누적 운송량은 총 186만1633TEU에 이른다.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싣어 나른 101만 5563TEU의 컨테이너 박스(20피트 컨테이너 길이, 6m)를 일렬로 나열할 경우 길이가 약 6100km에 이르며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10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운 재건을 목적으로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과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등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신조를 지원했다.

HMM은 이를 핵심 서비스 노선인 유럽 노선에 투입함으로써 기존에 강점을 가진 미주 노선뿐 아니라 유럽 노선에서도 글로벌 선사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해운재건에 앞장서고 있다.

초대형 선박 20척이 지금까지 싣어 나른 물동량은 헤드홀(head-haul)과 백홀(back-haul)을 포함할 경우 총 115항차에 약 210만4218TEU에 이른다. 이는 컨테이너박스를 나열할 경우 1만2625km로 지구의 지름(약1만2700km)과 비슷한 길이이다.

초대형 선박이 투입 완료되면서 HMM의 선복량은 2016년 40만TEU에서 현재 82만TEU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선사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초대형선 비율도 약 50%로 글로벌 선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 추가 발주한 1만3000TEU급 초대형컨테이너선 12척을 2024년 상반기까지 모두 인도받으면, 선복량은 100만TEU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KT엔지니어링  
스팀터빈 설비 수주  
창원에너텍과 MOU

KT엔지니어링이 중소형 발전용 스팀터빈(높은 온도와 압력의 증기를 노즐로 날개바퀴에 뿜어내어 회전력을 얻는 원동기) 설비를 첫 수주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KT엔지니어링은 창원에너텍과 '스팀터빈 발전 설비 구축 사업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T엔지니어링은 창원에너텍 사업장에 스팀터빈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데에 협력한다. KT엔지니어링은 지난 3일 발전 설비 설계·제작 전문업체인 월드파워텍과 협력해 중소형 발전용 스팀터빈 시장 진출을 알린 바 있다. 이번 협약은 KT엔지니어링의 솔루션 기반 에너지 사업의 첫 실적이다.

창원에너텍은 폐기물 고형연료(SRF)의 소각을 통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스팀을 생산·판매하는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이며 2014년 설립됐다.

양사는 ▲창원에너텍 사업장에 대한 스팀터빈 발전 설비 구축 ▲향후 창원에너텍 사업장에 대한 노후 설비 교체 및 추가 EPC(설계·조달·시공)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한다. KT엔지니어링은 창원에너텍 사업장에 맞춤형 스팀터빈 발전 설비 제안·컨설팅과 사업 추진 시 EPC 주사업자 역할을 맡게 된다.

KT엔지니어링은 독일제 등 외산에 의존해온 국내 중소형 발전용 스팀터빈 시장에서 품질·성능·가격 경쟁력을 가진 국산 제품으로 고객에게 설계·제작·설치, 시운전·정비까지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길 KT엔지니어링 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스팀을 생산·판매하는 다양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중소형 발전용 스팀터빈 시장 확대를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강준혁 기자 junhyuk@

## 에쓰오일, 삼성물산과 탄소중립·에너지 신사업 강화

친환경 수소·바이오 연료 파트너십  
수소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 협력키로

에쓰오일이 삼성물산과 손잡고 2050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 달성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에쓰오일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 에쓰오일 사옥에서 삼성물산과 '친환경 수소 및 바이오 연료 사업 파트너십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운영 비결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수소 사업 밸류체인 개발에 나선다. 바이오 연료 사업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 공급 및 운영 사업을



S-Oil 류열 사장(오른쪽)과 삼성물산 고정석 사장이 17일 친환경 수소 및 바이오 연료 사업 파트너십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개발하고, 해외 청정 암모니아와 수소 도입, 유통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 탄소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효율 수소 연료전지 공급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선제적 공동 투자를

검토하는 한편, 친환경 바이오 디젤, 차세대 바이오 항공유 부문에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신에너지 분야 진출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에쓰오일은

/양성운 기자